

한마음으로 다진 漁港・漁村整備

孫 井 植
〈韓國漁港協會 會長〉



일본전국어항협회장 佐藤稔夫씨의 초청으로 지난 11월 6일 일본 長崎縣 長崎市 長崎국제체육관에서 개최된 일본 제 43회 전국어항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長崎縣과 長崎市 그리고 長崎縣어항협회의 후원으로 전국어항협회가 주최한 연례행사로서 전국에서 어항 관계자등 약 4천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이 어항대회는 어항의 정비추진과 아울러 어항관련예산의 증액추진등 어항관계자의 총의를 결집하는 장으로서 어항의 정비추진에 크게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행

그동안 4차에 걸쳐 이 대회에 초청을 받고 참석한 결과 한일간의 우호친선은 물론 어항관계인사 및 양국협회간의 우의가 증진되고, 우리나라 어항과 협회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의 하나이다.

그동안 4차에 걸쳐 이 대회에 초청을 받고 참석한 결과 한일간의 우호친선은 물론 어항관계인사 및 양국

협회간의 우의가 증진되고, 잘 정비되어가고 있는 여러 어항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어항과 협회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兩國友誼증진도모 協會發展에 도움

특히 일본은 수산업을 둘러싼 내외의 사회·경제정세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어항을 200해리 시대에 있어서 수산업 재구축의 기반으로 뿐만 아니라 어항을 중심으로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주민의 생활을 떠바치는 주요한 핵으로서 또, 국민 여가이용의 급속한 증가 속에 도시주민등 바다와 친숙한 사람들의 만남의 장으로써 어항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어항·어촌을 일체로한 사회자본의 충실화에 의한 아름다운 어항·어촌건설등 어항관계 시책의 새로운 전진과, 관계사업의 강력한 촉진에 더 한층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水産長崎’기치아래 漁業基盤 조성 몰두

이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제8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의 촉진을 위한 1992년도 예산의 증액확보등 6개 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어항·어촌정비의 추진을 보다 더 강하게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 개최지인 長崎縣은 지형적으로 일본의 최서단, 九州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동서 213km, 남북 307km에 이르는 縣域을 가지고 있으나 육지면적은 4,112km²로서, 더욱이 平坦地가 부족하다. 반면 해안선은 변화무쌍하여 많은 반도와 도서, 만, 하구등을 형성하고 있어 그 총연장은 4,165km(전국2위)에 이르고 이 해안선에 연하여 288개의 어항과 81

개의 항만이 분포되어 있어 어항이 많기로 전국1위이다.

또한 주변해역은 九州서남방을 북상하는 대마도 난류와 우리나라 제주서방으로부터 남동진하는 황해냉수 및 九州서연안수 등의 수계와 도서등 천혜의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수산업이 성행, 1989년도의 어업생산액은 2,049억엔(생산량 848천톤)이며 이는 전국 어업생산액의 8.1%로서 北海道에 이어 전국2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현이다.

「수산 長崎」의 기치아래 「2000년·4000억엔에의 도전」을 겨냥하여 자원관리형 어업의 실현, 활력있는 어업생산기반 조성등 각종 중점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또한 雲仙·西海 국립공원을 비롯, 현내 각지에 현립공원 등 자연속에 빼어난 기경, 명승등 風光明媚한 관광지를 가지고 있어 국민관광·휴양지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長崎縣은 일찍이 1950년 대회와 1976년 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에는 세번째 대회를 개최하여 수산현으로서의 어항·어촌정비 촉진을 향한 강한 의지에 충만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대회에 앞서 전야제인 대회 환영리셉션이 11월 5일밤 長崎市의 “뉴-長崎”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이어서 장소를 달리한 長崎縣지사의 초연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각계인사와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특히 宮内雪夫 長崎縣의회의장(한일우호 長崎縣의회의원 연맹회장) 및 高平米雄 長崎縣어항협회장과의 정감어린 대화가 인상적이었다.

漁港건설 促進에 강한 意志 표현

대회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長崎縣 경찰 음악대의 광파레로 개막되었으며 참석자는 약 4천명으로서 대회장은 어느 대회보다도 기대와 열기에 충만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佐藤 전국어항협회장은 주최자로서의 인사말에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어항사업등 농산어촌 중시의 투자배분의 실현과 지방비 부담경감의 일환으로서 취락환경 정비시설등에 대한 재해복구제도의 창설에 대하여도 모두 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자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어항건설 촉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내빈축사에 들어가 田名部匡省 농림수산상(久世公堯 농림수산정무차관대독)은 「어업규제, 연안어업자원의 악화등 어려운 어업환경 속에서 어업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및 어업자의 생활 기반인 어항의 정비가 급선무이다. 따라서 어촌지역 발전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자의 총의아래 일체가 되어 예산 획득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대회에서는
 예년과 같이
 어항·어촌의
 정비촉진과
 1992년도 예산의
 증액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특히 어업취락
 환경시설 재해복구
 제도의 창설을
 새로 요구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즉 관·정·민
 삼위일체의
 어항·어촌의
 정비촉진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또 이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고자하는
 진지한 실천력을
 감안할 때
 어항·어촌정비관련
 결의사항 모두는
 착실히 진전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또 永田良雄 참의원 농림수
 산위원장(동위원회 初村瀧一郎
 의원대독)은 축사와 함께 연근
 해 어업의 진흥에 불가결한 어
 항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결의를 강하게 다
 짐했다.

그리고 内村良英 대일본 수
 산회장 등 수산단체장들도 한

결같이 어항의 중요성을 호소
 하고 이의 정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하여 高田勇 長崎縣
 지사는 「본 현은 어항도 많아
 어업생산의 장으로서 뿐만아니
 라 생활기반으로서도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기능을
 자랑하는 新長崎어항은 어획취
 급량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어
 이기회에 충분히 시찰해 주기



바란다」면서 「제43회 전국어항
 대회가 일본수산업 발전에 있어
 서의 비약의 장이 되도록 기원
 한다」고 환영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어서 藤田스미 중
 의원 의원, 前田勳참의원 의
 원, 福屋正嗣 수산청 어항부장
 그리고 필자등이 소개되었다.

회순에 따라 의장단 선임에
 들어가 의장에 高平米雄 長崎
 縣 어항협회장, 부의장에 白地
 照彦 山口縣 어항협회장과 中
 本重夫 和歌山縣 어항협회 부
 회장을 각각 선임하고, 이들

의장단에 의하여 의사에 들어
 갔는데 의사진행에 앞서 白浜
 榮一郎 長崎縣 어항협회 감사
 가 대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선언문에서는 「수산업은
 200해리 시대의 정착, 공해에
 서의 조업규제의 강화, 수입수
 산물의 급증등 외압적인 문제
 와 내적으로는 엇가의 하락,
 어업종사자의 고령화등 내외적

인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속에
 어려운 시련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들 수산업 주변정
 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는 어항을 시대의 요청에 적응
 하는 관점에서 정비하는 동시
 에 수산업을 핵으로한 양호한
 경관, 친근하기 쉽고 살기 좋
 은 환경의 형성등에도 배려하
 여 어항·어촌을 아름답게 종
 합적으로 정비개발, 지역의 활
 성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우
 리들에게 주어진 긴급과제」라
 고 지적하고 「따라서 수산업의

새로운 전진과 활력있는 沿岸區域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국어항 관계자의 총의 아래 공공투자의 대폭적인 확대와 어항·어촌관계 제 시책의 확충·강화를 정부 및 국회에 대하여 강력히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6개 決議案 채택 豫算增額 확보등

이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 결의안 6개를 채택, 이의 제안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승인, 결의했다. 이 결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진정서로 채택, 각 도도부현 어항협회장등을 결의 실행위원으로 하여 정부와 국회에 진정할 것도 결의했는데 결의사항의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8차 어항정비장기계획추진을 위한 예산의 증액 확보의 건

어항은 어업생산 및 수산물 유통의 거점으로서 또한 어촌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생활기반으로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어 수산업진흥상 아주 중요한 시설로서 그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해리 체제 정착화등에 대응하여 주변수역의 유효이용,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유통가공체제의 확립 및

활력있는 어촌의 형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1988년도부터 제8차 어항정비계획을 촉진해 왔으나 계획의 제4차년도인 1991년도의 실시예상액은 2,826 억엔으로 그 진도는 56%에 불과하다.

따라서 1992년도에 있어서는 현하 어려운 어업정세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항정비사업의 계획적이고도 강력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 확보를 강하게 요망한다.

② 어항·어촌환경 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예산의 증액 확보의 건

어업 및 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생산 및 생활의 중요 기반인 어항의 정비와 병행하여 도시에 비하여 뒤떨어진 어업취락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함과 함께 쾌적하고 윤택한 어항환경의 형성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는 현하 급선무이다. 따라서 1992년도에 있어서는 밝고 살기좋은 어촌건설을 향하여 취락 배수처리시설과 생활도로등 어업취락환경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업취락환경 정비사업 및 어항의 환경 향상에 필요한 복지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항환경 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예산의 증액확보를 강력히 요망한다.

③ 제5차 해안 사업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의 증

액 확보의 건

1991년도에 책정된 제5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에 의거한 국토보전을 위한 해안 보전시설의 정비, 쾌적하고 윤택한 해안환경정비 및 공공 용지의 확보에 이바지 할 공유지 조성, 호안등의 정비가 촉진되고 있으나 계획 초년도인 1991년도의 실시 예상액은 305억엔으로 그 진도는 17%에 불과하다. 따라서 1992년도에는 어촌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해안환경의 창출을 위하여 어항해안사업의 계획적이고도 강력한 추진을 꾀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확보를 강력히 요구한다.

④ 어항관계 공공투자 총실 임시 특별조치 범위(예산) 확보의 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촌지역에 대한 정주 촉진이 불가결하나 동지역에 있어서는 거주환경이 뒤떨어져 있고 또한 過疎化, 고령화가 진행되어 활력의 저하가 심각한 과제이다.

따라서 1992년도에는 어촌지역의 주요산업인 수산업의 진흥을 도모해 나가고 주요 어항의 정비추진과 함께 뒤져 있는 어촌의 생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 방재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 및 어항해안 사업에 관계되는 공공투자 총실 임시 특별조치 범위(예산)의 확보를 강하게 요망한다.

⑤ 어항·어촌 관계 생활 관련 중점화 범위(예산) 확보의건 어촌에 있어서의 생활환경 정비는 그가 처해있는 입지적 조건 등으로 도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

반면 훌륭한 경관을 가진 많은 어촌은 도시주민등의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이용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배수처리시설, 생활도로, 녹지, 광장등을 비롯한 어항·어항해안 및 배후생활 관련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윤택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은 수산업진흥 뿐만 아니라 연안역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균형있는 국토 발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1992년도에는 긴급정비를 요하는 어항·어촌의 생활환경정비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항·어촌에 관계되는 생활관련 중점화 범위(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망한다.

⑥ 어업취락 환경시설등에 관계되는 재해 복구제도 창설의건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은 살기 좋고, 활력있는 어업취락의 형성을 목표로 1978년도부터에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어업취락은 바다에 면하여 高潮·호우 등 이상 천연현상에 의하여 매년과 같이 많은 재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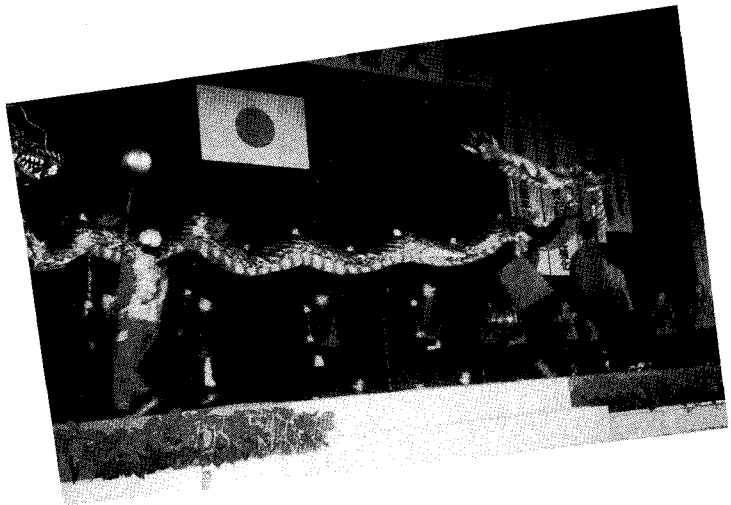
어업취락 환경시설등에 대하여도 정비가 추진되어 그 시설량의 증대에 따라 피해 시설량

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시설의 재해복구에 대하여는 국가의 지원조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공단체의 단독사업에 의한 복구로 이에 필요한 경비는 불시에 다대한 지출이 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2년도에 있어서는 어업취락 환경시설등에

대회 종료후에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長崎가을 제례의 대표적인 「龍춤」과 長崎 민요무용연맹에 의한 「長崎 바야시」 등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으며 부수행사로 대회장 밖에서는 어선해난 유아육영모금과 지방특산품의 전시·직판회등이 전개되어 대회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공연을 관람한 후 대회 참가



관계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조치가 강구되도록 재해복구제도의 신규창설을 강하게 요망한다.

民俗무용·海難育英 모금展示会도

마지막으로 차회 대회개최지인 山口縣을 대표하여 白地 山口縣 어항협회장이 「山口에서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요지의 인사를 했다.

자들은 新長崎어항 시찰에 나섰다.

高平 長崎縣 어항협회장의 안내로 시찰한 이 어항은 전국 굴지의 특3종 어항으로서 長崎縣 경제의 지주라고 한다.

五島灘에 면한 西彼杵 반도의 남쪽에 위치하여 구長崎어항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어항은 방파제등 완벽한 외곽시설과 광활한 박지(1,500,000㎡), 안벽(연장 4,179m), 돌제(면적 227,000㎡)를 갖추고 있었다.

또 221,500㎡의 넓은 부지 위에 길이 1,020m의 방풍살다를 구비한 32,037㎡의 도매장(동·서 2개동)을 비롯, 11,707㎡의 중도매장(매장 65개, 사무실등), 수조용량 145톤의 활어저장시설과 3,730㎡의 관련상품 매장(매장 22개, 식당 5, 사무실등)을 갖추고 방송터미널, 저온냉장고, 현장 대기소(7개소), 수위실(2개동), 해수처리시설, 쓰레기 집적소, 옥외화장실(7개소), 어상자적지장, 콘테이너 야드장 등 관련시설을 완비하고 38,643㎡의 넓은 주차장(업무용 보통차량 909대, 대형차량 74대, 통근용차량 814대)도 갖추고 있었으며 1990년도에는 양륙량 229,623톤(904억 6,944만엔 추정), 수탁취급고 165,014톤(699억 4,867만엔)의 실적을 올린 규모가 방대한 어항이었다.

천연의 양항으로 옛부터 번창해온 구長崎漁港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와 어항의 狹濫化, 안벽·박지시설 등의 부족, 배후용지의 확보난등이 표면화되어 이전이 검토되기 시작하여 그 이전지를 이곳 삼중지구(三重地區)로 정하고 제5차 어항정비장기계획에 의거 1973년에 착공한 이래 16년의 세월과 1,400억엔의 거액을 투자, 1989년 9월 29일에 개항했다.

어항시설 내에는 수산가공단지가 형성되어 양륙으로부터 유통·가공까지 일관한 어항기능

이 갖추어져 기간어업인 이서(以西)저인망어업, 대중형 권망어업의 양륙기지로서 수산현 長崎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機關·團體협조놀라워 災害復舊制度촉구

배후지에는 어업관계자, 일반시민이 정주할 광대한 생활 관련 용지와 기능시설을 정비, 세계에서도 그 류를 찾아 볼 수 없는 어항도시를 겨냥하고 있는 외에 동해·황해의 자원 관리와 개발을 목적으로 국제·학술적인 연구기관등을 이 어항안에 집약하는 「長崎 국제마린도시구상」이 세워져 있다.

제8차 정비계획에서는 (-)6m의 준설공사를 비롯, 1995년 완성을 목표로 한 임항도로(약 3km)의 용지매수가 진행되고 있어 1991년 현재 진척률은 계획대비 57% 임을 감안할 때 이 야심적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다.

이번 長崎縣 대회는 靑森, 靜岡, 高知縣 대회에 이어 네 번째 참석한 대회인데, 이 곳은 지난 10월의 18, 19호 태풍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입어 아직도 그 피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또 6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雲仙·普賢岳의 대분화는 현내 島原반도의 수산 및 농림업에 심대한 재해를 입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척되었음에도 관계기

관·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완벽한 대회준비와 질서정연한 행사, 그리고 그 지방 특성을 살린 성대한 부수행사 등 어느 분야 하나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두의 행사로 치러지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 개최지인 長崎市(長崎항)은 本島 等시장의 환영인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420년전 포르투갈인이 개항한 항으로서 개항 이래 바다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 세계의 長崎로서의 변천을 계속해 왔고 특히 德川시대의 220년간 세계에 개방된 유일의 항도로서 세계의 문화·천문학·의학등 해외 문물이 들어왔으며 명치유신에 와서는 영국·프랑스인이 이곳을 찾는등 문명개화는 長崎에서 시작되어 전국에 보급되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에 차 있는 듯 했다.

이번대회에서는 예년과 같이 어항·어촌의 정비촉진과 1992년도 예산의 증액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특히 어업취락환경시설 재해복구제도의 창설을 새로 요구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즉 관·정·민 삼위 일체의 어항·어촌의 정비촉진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또 이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고자하는 진지한 실천력을 감안할 때 어항·어촌정비관련 결의사항 모두는 착실히 진전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